

11월 광주·전남 물가 10년내 가장 많이 올랐다

각각 4.3%·4.4% 상승...김장철 채소·축산물·석유류가 주도
생활물가지수는 6.3%·6.2%...전국 평균보다 1% 이상 상회

광주·전남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로 치솟으며 10년 만에 최대폭을 나타냈다. 김장철과 작황 부진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고,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석유류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광주 4.3%·전남 4.4% 상승했다.

지역 소비자물가는 지난 2011년 11월(광주 4.5%·전남 4.4%)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지난달 전국 소비자물가는 3.7% 올랐다. 광주·전남 '4대 물가'는 채소와 축산물, 석유류가 주로 이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채소 물가는 광주 15.7%·전남 10.3% 올랐다. 김장철을 맞아 수급이 불안정했던 배추 가격은 광주 39.5%·전남 27.9% 뛰었다. 오이(광주

145.6%·전남 115.1%)와 열무(광주 131.0%·전남 29.1%) 등도 크게 올랐다. 축산물 가격도 광주 16.0%·전남 14.2% 급등했다. 달걀 값 상승률은 광주 42.0%·전남 36.9%로 여전했고, 돼지고기(광주 13.3%·전남 15.7%)와 닭고기, 수입 쇠고기, 국산 쇠고기 등 대부분이 '두 자릿수' 상승했다. 유류세 인하 폭이 덜 반영되면서 지역 휘발유 가격은 전년보다 광주 35.0%·전남 32.7%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8년 11월(광주 43.5%·전남 43.9%) 이후 23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석유류와 우유(광주 7.3%·전남 6.6%) 등 가공식품이 모두 오르면서 공업제품은 광주 6.0%·전

남 6.4% 올라 2011년 11월(광주 6.5%·전남 7.6%)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광주·전남지역이 각각 6.3%, 6.2%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5.2%)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무려 2008년 8월(광주 7.3%·전남 7.0%) 이후 1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통계청 측은 "국제유가나 곡물·원자재 가격 추이를 볼 때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개인서비스도 방역체계 전환, 소비심리 회복으로 오름세 지속 가능성이 크다"며 "12월 물가도 상당폭의 오름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한전 전국 15개 지역본부에 겨울철 전력수급상황실 운영

한국전력은 내년 2월까지 석 달 동안 광주전남 본부를 포함한 15개 지역본부에 전력수급상황실을 운영한다. 한전은 이 기간 동안 송배전설비 특별점검과 공동주택 지원체계 마련, 복구지원 등에 힘쓰기로 했다.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변압기 과부하를 해소하고, 정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송배전설비를 특별 점검할 예정이다. 원격 부하 감시를 펼칠 배전용 변압기는 약 18만 5000개소이다. 또 797개 배전전력구의 자동화제타미 설비와 화재수신반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정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전과 전기안전공사는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구내정전이 발생하면 한전(123) 또는 전기안전공사(1577-7500)으로 신고하면 된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요 전력설비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전직원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안정적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해 겨울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 3주차 전력수요 공급능력은 11만 178MW으로, 최대 전력 전량 9만3000-9만3500MW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대한민국 환경·에너지 대상 해양에너지 환경부 장관상

㈜해양에너지가 지난 30일 '2021년 대한민국 환경·에너지 종합대상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광주·전남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종합에너지 기업 해양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발전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에너지 소외계층의 편리성을 높이고 전국 최초의 수소+CNG 복합충전소와 천연가스버스(CNG)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 친환경 가스냉방 기기(GHP)를 보급하고 연료전지·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지역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힘써왔다. 최근에는 ESG위원회를 발족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ESG 경영을 강화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945.27 (+45.55)
↑ 코스닥	977.43 (+0.28)
↑ 금리 (국고채 3년)	1.845 (+0.032)
↓ 환율 (USD)	1175.90 (-3.30)

롯데백화점 광주점 '프리미엄 리빙관' 개관

700㎡ 규모 'LX 지인스퀘어' 운영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지난 9월부터 시작한 '프리미엄 리빙 종합관' 조성을 마무리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30일부터 10층에서 700㎡ 규모 'LX 지인스퀘어'를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도탈 인테리어 전문관'을 내건 이곳에서는 실내 자재 선택부터 개선포공사 상담까지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9월 10일 8층 생활 전문관을 새단장해 문 열고, 지난달까지 10층 '인테리어 전문관'을 조성해왔다. 이로써 기존 9층 가전 전

문관까지 합해 3개층에 걸친 지역 최대 규모 '프리미엄 리빙 종합관'이 완성됐다. 10층 전문관에는 아파트 실내를 실제처럼 구현한 112㎡(34평) 규모 견본 공간도 마련됐다. 이곳에서 LG전자 '오브제' 가전과 주방가구인 '제니스9 오브제 살롱'의 시공 사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윤지원 롯데백화점 광주점 선임바이어는 "리모델링 수요 증가와 함께 높아진 고객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인테리어 전문관을 열었다"며 "인테리어 상담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에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10층에 마련된 700㎡ 규모 '인테리어 전문관'. (롯데쇼핑 제공)

유류세 인하 이후 휘발유 가격 21일 연속 하락

광주 132원·전남 117원 떨어져
전남 하락률 전국 시·도 중 최하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시행된 이후 21일 연속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유류세 인하 직전보다 보통 휘발유 주유소 평균 가격은 1당 광주 132원·전남 117원 가량 떨어졌지만, 애초 예상한 인하분 164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히 전남 휘발유 평균가 하락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를 나타냈다. 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보통 휘발유 주유소 평균 가격은 1당 광주 1669.41원·전남 1681.08원으로, 전남보다 각각 1.6원·1.31원 내렸다.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 달 11일에 비해서는 광주 132.49원(-7.4%)·전남 117.4원(-6.5%) 인하됐다. 광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달 10일 1800원을 넘긴 뒤 11일 광주 1801.9원·전남 1798.48원

으로 치솟았다. 애초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1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씩 내릴 것으로 기대됐다. 이날 기준 보통 휘발유 평균가가 가장 비싼 지역은 제주(1739.31원)였으며, 서울(1730.87원), 강원(1681.99원), 전남(1681.08원) 순으로 높았다. 광주 평균가는 17개 시·도 가운데 10번째를 차지했고,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1636.51원)이었다. 휘발유 가격 하락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155.13원)과 울산(-155.68원)으로, 이들 지역은 지난달 11일보다 8.6% 가격이 떨어졌다. 광주 하락률은 7.4%로 전국 10번째에 들었고, 전남 하락률(-6.5%)이 최하를 차지했다. 이 기간 동안 전국 평균 가격은 1813.78원에서 1673.79원으로, 7.7%(-139.99원) 내렸다. 인하분이 가장 큰 지역은 1900.63원에서 1739.31원으로 161.32원(-8.5%) 떨어진 제주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노조 '베스트 상사상' '휴머니스트상' 시상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왼쪽 2번째)와 농협 전남노동조합(위원장 안종팔·오른쪽 3번째)은 2일 무안군 삼향읍 지역본부에서 '9회 베스트 상사상'·'4회 휴머니스트상' 시상식을 열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이끄는 조합원들을 시상했다. 왼쪽 3번째부터 최운선 농협고흥군지부장, 김인철 농협화순군지부 연합사업단장, 박근숙 농협신용보증 광주센터 팀장. (전남농협 제공)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

